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
		배포 일시	2021. 12. 21.(화) / 총 4매(본문3, 참고1)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최신형, 사무관 박병관 • ☎ (044) 201-3684, 3689	
	새만금개발청 신재생에너지기획과		• 과장 우종하, 사무관 한일수·백준호·우정민 • ☎ (063) 733-1300, 1301, 1306	
	새만금개발공사 그린뉴딜사업처		• 차장 홍승용, 팀장 박하철 • ☎ (063) 440-6820, 6821	
	한국남동발전 그린뉴딜사업처		• 차장 이성호 • ☎ (070) 8898-1853	
보 도 일 시		2021년 12월 22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※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21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새만금 3GW 재생에너지 시대의 막 오른다

- 육상태양광 발전시설 준공... '재생에너지 중심지' 비전선포 후 첫 성과
- 새만금에서 최초로 상업운전 개시, 8만여 가구 1년 사용할 전력 생산

- 새만금을 '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지'로 개발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 아래, 새만금이 열어갈 '재생에너지 시대'의 서막이 올랐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와 새만금개발청(청장 양충모)은 12월 22일 새만금에서 최초로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육상태양광 발전시설의 준공식을 개최한다.
 - 22일 열리는 준공식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, 양충모 새만금 개발청장, 소순열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,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산업부, 군산시, 사업시행자* 등이 참석한다.

* (주)새만금희망태양광(SPC) : 새만금개발공사, 남동발전, 현대엔지니어링 등

** 코로나-19 확산방지를 위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,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

- 이번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준공은 2018년 10월 30일,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‘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’ 선포식 이후 가시화된 첫 번째 성과이다.
- 대통령은 비전 선포식에서 새만금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지임을 선포하면서,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는 지역주민의 뜨거운 여망이 담겨 있고,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정책을 가름하는 시금석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.
- 1구역 준공에 이어 2, 3구역까지 상업운전을 시작하면, 300MW 규모에 달하는 육상태양광 발전시설은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3.53 km²에 총사업비 약 4,300억 원을 투입한 시설로, 앞으로 연간 약 8만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다.
-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지역 주민의 참여로 운영되는 ‘지역상생’ 모델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.
- 새만금개발청은 태양광 발전수익을 지역·주민과 공유하기 위해 2019년 2월 민관협의회*를 발족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상생 방안**을 마련했다.
 - * 전북지역 시민·사회단체, 주민대표(도의원), 전문가, 관계기관 등 18명 구성
 - ** 주민참여채권 연 7% 수익률 제공, 지역기업 40% 참여, 지역기자재 50% 사용 권장
- 이번에 준공한 발전시설의 사업자인 (주)새만금희망태양광에는 지역 기업 6개 사*가 참여했고, 그 중 2곳이 전체 시공의 40%를 진행했다.
 - * (주)경원통신건설, (주)디엔아이코퍼레이션, (주)여민건설, (주)익산전업사, (주)전주문화방송, (유)한백종합건설
- 또한, 지역 기업이 생산하는 태양광 모듈 등의 주요 기자재를 50% 이상* 사용토록 함으로써 지역 기업이 새만금을 토대로 재생에너지 관련 밸류체인(가치사슬)을 구축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.
 - * 일부 사업장에서는 지역기업 생산 기자재를 80% 이상 사용

○ 또한, 사업지역 기준 1km이내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 수익률 7%, 만기 20년의 **주민참여채권 모집**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주민참여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.

□ 한편, 이번 육상태양광 발전시설 준공을 신호탄으로 수상태양광·해상풍력 등을 포함해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**3GW***급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.

* 태양광 2.8GW(새만금청 2.4, 농식품부 0.4), 풍력 0.1GW, 연료전지 0.1GW

○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에 조성되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활용해 국내 최초로 **RE100(재생에너지 100% 사용)**이 실현되는 **스마트 그린산단***을 만들어 저탄소·에너지자립의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.

* 새만금 산단 5·6공구(3.7km²)에 조성하며, 작년 12월 착공식 개최

□ **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**은 발전사업 준공을 위해 노력한 기관과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, **균형발전과 탄소중립**이라는 국가 비전 달성을 위해 새만금이 **중요한 역할**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, 새만금이 **새로운 국토발전의 모델**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힐 예정이다.

□ **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**은 이번 육상태양광 발전시설 준공은 새만금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산업의 **중심지**가 되고자 내딛는 첫 걸음임을 밝히면서,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와 스마트 그린산단이 공존하는 새만금만의 강점을 발휘해 우리나라가 **친환경 경제국가**로 대전환하는 **마중물 역할**을 하겠다고 강조할 계획이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북한도시정책과 박병관 사무관(☎ 044-201-3689), 새만금개발청 백준호
사무관(☎ 063-733-130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